

제1장. 시장 상황 - 향후 도전 과제에 대한 회복력 강화

2023년 말 ASEAN+3 금융안정보고서가 창간된 이후, 2024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 환경은 꾸준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3분기에 접어들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정책에 대한 기대감, 첨단 기술 부문과 미국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고,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ASEAN+3 시장은 2023년 말 개선된 금융 여건의 혜택을 누렸으나, 2024년에 접어들면서 각 시장들의 상황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ASEAN+3 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고, 그 결과 이 지역의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도 비교적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ASEAN+3의 거시금융 안정성에 대한 주요 위협 요소로 남아 있으며, 각국의 성장 전망, 환율 변동, 부동산 부문 기업들의 어려움, 가계 부채 수준 등에 따라 정책 대응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할 경우,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응은 비통화적 수단의 가용성과 글로벌 통화 긴축의 파급효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은행 시스템은 일부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 내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은행에 비해 작은 규모에 머물르고 있다.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국내외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정책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부동산 부문의 취약성, 높은 가계 부채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특정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당국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정책당국은 녹색 금융과 금융 디지털화의 급격한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관련 규제를 재정비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집 분석. ASEAN+3 금융의 상호연계성과 파급 가능성

ASEAN+3 경제 간 지역 내 상호연계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지역은 주요 선진국 경제와 외부 충격으로 인한 거시금융 리스크에 취약한 상태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대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들의 금융 시스템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국경을 넘어 지역 전체로 충격을 확산시킨다. 또한,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선진국 경제와, 중국은 홍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각 ASEAN+3 경제는 내부 파급효과를 받는 동시에 ASEAN+3 지역 내외의 선진국 및 신흥시장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원천이기도 하다.

ASEAN+3 금융시스템 간 상호연계성 증가는 지역 내 감시 강화와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 국경 간 감시와 데이터 공유 강화, 지역 단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모 은행이 있는 본국(home)과 지점이 있는 현지국(host) 간 감독 강화, 금융 위기 상황 발생시 유동성 지원 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제2장.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조달에서 비롯된 취약성과 잠재적 파급 효과

COVID-19 팬데믹 이후 ASEAN+3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여러 경제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하락세는 일부 경제에서의 금리 상승과 맞물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취약성을 심화시켰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의 잠재적 파급위험은 은행 부문의 견고한 자본 완충장치 덕분에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은행, 지역은행 및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그림자 금융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숨겨져 있거나 덜 가시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의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당국은 유동성 부족을 겪고있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탄력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건전성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제3장. ASEAN+3지역에서의 미 달러 의존에 대한 시사점

미 달러는 무역 대금 결제의 매개체이자, 국경 간 금융 거래를 위한 선호 통화로서 ASEAN+3의 거시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SEAN+3 미 달러 공급망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상호작용하고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업체와 채권 발행자들은 미 달러 외환의 주요 공급원이며, 수입 및 채무 상황은 주요 수요처로 작용한다. 은행과 다양한 비은행 기관(증권사, 자산운용사, 기타 시장 중개기관)들은 자금 흐름과 리스크 관리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급망은 시장 상황이 악화될 때 통화 및 만기 불일치로 인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미 달러에 대한 의존은 ASEAN+3 금융 시스템에 두 가지 주요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미 달러의 가용성 부족은 금융 시장과 중개 기관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둘째, 미 달러 의존성은 미국의 통화 정책, 지정학적 긴장 및 기타 글로벌 상황으로 인한 충격을 전파하는 채널로 작용한다.

정책 당국은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와 장기를 아우르는 이중적 시계의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파급 효과에 대한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 부문에 대한 감시와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ASEAN+3 금융 시스템 내에서 다른 통화들이 유의미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술적 해결책을 도입하여 미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다각화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협력과 금융안전망의 확충도 이 지역의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